

‘해남고구마 산업화 전초기지 조성’ 새도약 나선다

郡, 평활리에 ‘고구마연구센터’ 개소
50억 투입 연구동·비닐온실 등 갖춰
품종 개발·육성·보급 산업 전반 담당
지역농가 연계 부가가치 창출 역할도

해남의 대표 특산물인 고구마의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해남군 고구마연구센터가 개소했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남 삼산면 평활리 농업연구단지에서 고구마연구센터 개소식을 갖고, 해남고구마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해남고구마센터는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약 3만㎡ 부지에 연구동(672㎡)과 비닐온실(4천㎡), 저장고, 순화시설, 실증시험포(2만4천930㎡) 등을 갖추고 있다. 지역에 적합한 고구마 품종의 개발·육성·보급을 비롯해 조식배양묘 생산, 병해충 진단·저감



지난 25일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에서 열린 고구마연구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기술 연구, 재배기술 개선과 농업인 교육, 유통 조직화·가공제품 개발 등 고구마 산업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 연구시설이다. 해남군은 센터를 기반으로 생산 가공 유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해남형 고구마 산업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남고구마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생산 기술 확보를 통해 명품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농가와 연계한 산업화 및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남은 전국 최대 고구마 재배 면적(1천943ha)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제 제42호로 등록된 ‘해남고구마’는 대한민국 대표 명품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고구마연구센터는 해남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농업연구단지에 위치해 AI(인공지능) 스마트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거점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남군은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약 100ha 규모로 미래 농업을 이끌 농업연구단지를 조성 중이다. 단지내 조성중인 국립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컨트롤타워로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아우르는 실증·연구단지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고구마 연구센터가 들어선 농업연구 1단지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에너지대상 ‘장관상’

온실가스 16.4% 감축·에너지 효율 개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인 공로를 인정 받았다. 26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5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에너지대상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정부 포상이다. 호남권생물자원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

비를 적극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률 16.4%를 달성했다. 이는 정부 권장 목표인 13.2% 대비 3.2%p 초과 달성한 수치다. 또한 계약전력 6%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100kW)를 설치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개선하고, 사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지난 7월 국가 연구기관 최초로 탄소중립 건축 인증 최고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친환경 경영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저탄소 정책을 적극 실천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무안군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총력

내년 3월까지 긴급지원반 운영
상하수도사업소, 신속 복구 지원

무안군이 기온 급강하에 따른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봄까지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26일 무안군에 따르면 내년 3월15일까지 동절기 한파 대비 ‘동파긴급지원반’을 운영한다. 지원반은 상하수도사업소 직원과 급수공사 대행업체 관계자 등 총 30명(2개반)으로 구성됐으며, 한파 기간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을 줄일 방

침이다. 수도계량기가 동파될 경우 상하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교체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야 하며, 계량기를 통과한 집안 내부 수도관이나 수도꼭지의 동파는 수용가가 직접 조치해야 한다. 박상원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영하권 날씨가 지속되면 계량기 파손과 배관 동결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각 가정에서는 수도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도 시설 보온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진도군 해창·염대 재해위험지구 정비 착수

815억원 투입 제방 보강·교량 재가설
안전기원제 개최...2030년 준공 목표

진도군이 상습 침수 구역인 해창·염대 지구의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26일 진도군에 따르면 전남 오후 사업 현장에서 김희수 군수와 박금례 군의회 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창·염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총사업비 815억원을 투입해 진도천에서 염대(염장)천에 이르는 구간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주요 공정은 ▲하천 제방 축제 및 보강(1.9km) ▲교량 8개소 재가설 등이며, 오는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공사 시작을 알리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기원제를 시작으로 공사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해 없는 진도’를 만들기 위해 완공되는 그날까지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영광청년육아나눔터 내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아이들이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청년육아나눔터 복합 상생 거점 ‘우뚝’

135억원 투입...창업·돌봄 한곳에
44가정 육아 품앗이·놀이터 북적

영광군이 청년 정착과 안심 보육 환경을 위해 조성한 ‘영광청년육아나눔터’가 개관 두 달여 만에 자립과 돌봄을 아우르는 지역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26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이 센터는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청년과 가족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지상 5층, 연면적 3천239㎡ 규모의 시설 1·2층

은 청년 전용 공간으로 특화됐다. 이곳에서는 ‘영광청년 커리어UP’, 청년 문화클래스 등 역량 개발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며, 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팝업스토어 4곳은 개관 후 700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3·5층은 부모와 아이를 위한 육아 통합 지원 공간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한곳에 모여 원스톱 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까지 44가정 160여명이 육아 품앗이 활동에 참여해 돌봄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장난감도서관 역시 회원 500명이 730점을 대여하는 등 이용률이 높다. 무엇보다 5층 실내놀이터는 지역 내 부족한

어린이 놀이 시설을 해소하며 하루 평균 40여명, 누적 약 2천명이 이용하는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은 해당 시설을 인근 여성·청소년문화센터와 연계해 ‘청년이 머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을 실현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육성할 방침이며, 함께출산율 6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영광청년육아나눔터는 청년의 도전과 가족의 일상이 공존하는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단백질·미네랄 풍부’ 완도 김수확 한창
첫 위판서 594t 거래...28억여원 규모

‘수산 1번지’ 완도 바다가 제철을 맞은 햇김 수확 열기로 뜨겁다. 26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의회 당인리 위판장에서 올해 첫 물김 위판이 개시됐다. 당일 하루에만 약 594t(4천949마대)의 물김이 거래됐으며, 총 위판액은 27억9천900만원을 기록했다. 마대(120kg)당 가격은 4만1천원에서 최고 6만1천원에 형성돼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올해산 물김 채취는 내년 4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완도군에서는 1만3천163ha의 어장에서 300여여가가 김 양식에 종사하고 있다. 완도 김은 김발을 수면에 띄워 기르는 방식으로,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라 특유의 맛과 향이 뛰어나다.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높아 ‘바다의 반도제’로도 불린다. 완도군 관계자는 “고품질 김 생산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우량 김 종자와 활성 처리제, 친환경 인증 부표 공급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 기자



영암군보건소, 겨울철 낙상 사고 예방 교육

근력 운동·생활 수칙 등 안내
영암군보건소가 본격적인 겨울 추위를 앞두고 빙판길 낙상 사고에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안전 챙기기에 나섰다. 26일 영암군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경로당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7곳을 순회하며 장애인과 어르신 130명을 대상으로 ‘낙상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현재 영암군의 등록 장애인은 4천489명, 노인 인구는 1만6천28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약 40.8%

에 달한다. 특히 질병관리청 통계상 전체 손상 입원 환자의 절반 이상(51.6%)이 추락·낙상 환자로 집계될 만큼 낙상은 골절과 장기 요양을 유발하는 노년층 건강의 주적이다. 이에 군은 세한대학교와 연계해 전문 강사를 파견,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낙상 위험 요인 이해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노인성 질환 예방 관리 ▲운동용품 활용한 균형·근력 운동 실습 등으로 알차게 꾸려졌다. /영암=나동호 기자